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총회장 오 정 호 목사

금번 108회기 총회의 표어는 “교회여 일어나라!(Arise, Churches!)”입니다.

107회기의 ‘살롬·부흥’을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중흥을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 받은 목회자와 성도라면 예외 없이 자신이 속한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중흥을 꿈꾸며 소원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원불변한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진리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유일무이한 영적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

And the word of God kept on spreading;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continued to increase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were becoming obedient to the faith.(NASB)

주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다음 사항이 은혜가운데 진행되기를 힘썼습니다. 정책 총회의 기반을 놓음, 미래세대의 발전과 성숙, 총회와 총신 그리고 임원회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원팀 정신사역, 총회 연기금 활성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판결문 실명제, 대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역할 감당, 목양아카데미를 통한 목회현장 응원의 사역에 대하여 마음을 담았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회기에서 더욱 힘 있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에 총회와 총신의 관계가 한결 두터워진 것을 기뻐합니다. 총신은 대한민국 신학의 심장입니다. 개혁신학의 본산입니다. 총신의 신학이 흘러가는 대로 한국교회의 지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총회의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고백과 개혁신학에 바탕한 생활신앙이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유일무이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에 기초해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지만 천상교회의 영광을 주목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총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순종으로!

2024. 8. 30.

총회장 오정호 목사 및 임원 일동